

국민참여재판 10년, 신뢰도 향상

피고 항소율 2008년 비해 5분의 1 이상 감소... 이춘석 의원, "민사사건까지 확대 필요"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당시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2016년에는 23%p 가량 감소해 48.9%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검사에 의한 항소율 역시 59.4%에서 51.5%로 줄었다. 전체 항소율은 85.9%에서 76.7%로 하락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1심 형사사건의 전체 항소율이 32.3%에서 43%로 오히려 증가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판결, 판결 일치율은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로 상승했으며,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배심원 판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 역시 높았음을 보여준

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2012년 살인이나 강간치사 등의 중범죄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역시 2008년 64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총 건수는 1,792건이다.

이춘석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무료 건강 상담 진행

원광대학교병원원은 간호사회가 '1004Day' 봉사활동 일환으로 지난 11일 원광대병원 로비에서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한 목 지키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교육에서 원광대병원 간호사들이 내원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을 펼치는 모습이다.

뇌물수수 혐의 도의회 간부 집행유예

사업 알선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전북도의회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16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태양광업체 대표인 B(56)씨로부터 총 56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의 항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당시 부안군 부군수였던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C씨에게 줄포만 갓별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으니 돈을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태양광업체 대표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상민 기자

전주서 여학생 2명 감금·폭행 일당 검거

전주에서 여학생 2명을 감금 및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2일 준감금 등의 혐의로 A(19)양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A(19)양 등 8명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B(16)양과 C(19)양을 전주서 신동 한 원룸에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양과 C양이 자신들이 빌린 렌트카를 몰래 타고 나왔다

가 사고가 발생해 수리 금액을 변상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도내 시·군 드론축구선수단 창단 지원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 11월 25일 전주시장배 대회 참가 필수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가 전주시가 최초로 개발해 전 세계인의 레저스포츠로 발돋움 중인 '드론축구'를 함께 이끌어갈 드론축구선수단 창단을 지원한다.

드론축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인 드론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신개념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로, 시는 향후 5년 안에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드론축구선수단을 모집해 선수단

창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부는 도내 각 시·군에서 최초 결성된 드론축구선수단에 대해서는 드론축구공 1세트(55만원)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드론 축구 시연 및 체험, 드론축구공 조립 및 정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론축구 세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11월 25일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처음 창단된 팀으로, 회원이 5명 이상인 드론축구공을 5대 이상 보유한 구단이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25일 개최 예정

인 전주시장배 제3회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드론축구선수단 모집을 통해 도내 모든 시·군에 드론축구단이 창단돼 현재 활동 중인 7개 드론축구선수단을 포함해 20개 선수단으로 늘어나 도내 전 지역으로 드론축구 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 드론축구선수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 및 안내사항은 전주시 송천동 소재 새만금항공(연락처: 010-5395-4816)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덕진서, 절도범 검거 도운 민간인에 감사패 전달

덕진경찰서는 12일 차량 절도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22시께 덕진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을 끌다 피해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목색 중에 박씨와 이씨에게 발각돼 피의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검거한 것으로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했다.

함원배 서장은 "절도범죄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범죄 예방에 힘써준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 우리 경찰도 시민들을 믿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북이 만들어야 할 한국의 미래'

완산경찰서, 원광대 김도중 총장 초청 특강 실시

완산경찰서는 12일 5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광대 김도중 총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도중 총장은 '전북이 만들어야 할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황수 서장은 "열정적인 강연을 준비해주신 김도중 총장에 감사드립니다"며 "완산경찰 또한 열정적인 마음과 집념으로 주민에게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 진북파출소, 현장체험 학생버스대응 음주운전 예방·교육

덕진서 진북파출소는 12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전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버스기사들의 출발 전 음주측정과 더불어 교통법규 준수 등

을 교육했다. 최광재 진북파출소장은 "교실 밖으로 나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견문과 소양을 넓히는 현장체험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